

2021년도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제4차 복원정비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1. 11. 23.(화), 14:00 ~ 20: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회의실(1층)
- ▣ 출석위원 : 장석하(위원장), 남해경, 남효대, 백종오, 양은경, 위광철,
진혜영, 조인숙, 최종덕 (이상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수 리 기 술 위 원 회

■ 고지사항

□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회의, 의결방식 및 회의록 공개

1. 법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2.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의결방식)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회의내용은 기록·녹취가 되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행령 제3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목 차

【심의사항】

- | | |
|---|------------------------------------|
| 1 | 「남한산성(사적)」 암문 보수공사 |
| 2 | 「남한산성(사적)」 외성 보수공사 |
| 3 |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사적)」 훈련청 및 군기고 복원공사 |
| 4 |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사적)」 보수정비공사 |
| 5 | 「부안 유천리 요지(사적)」 보호각 건립공사 |
| 6 | 「포항 장기읍성(사적)」 수구지 복원정비공사 |
| 7 | 「경주 나정(사적)」 경역정비공사 |

【심의사항】

안건번호 : 복원정비 2021 - 4차 - 001

1. 「남한산성(사적)」 암문 보수공사

가. 제안사항

- 2021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 광주시 소재 사적 「남한산성」 암문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1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 광주시 소재 사적 「남한산성」 암문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번지 일원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남한산성 암문 보수공사 설계
 - 공사예정금액 : 857백만원
 - 사업지침 :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암문 보수공사(2개소) 설계를 실시한다.
 - 사업내용
 - 외동장대 암문(14암문) 정비 : 성곽 L=14.5m, 암문 1개소, 여장 4타
 - 토 공 사 : 터파기 703m³, 되메우기 687m³, 잔토처리 16m³, 잡목제거 750m²
 - 성곽보수 : 거친돌해체 25m³, 거친돌쌓기 27m³, 채움석해체 44m³, 채움석쌓기 45m³, 거친돌보충 6m³, 채움석보충 23m³, 성곽돌가공(거친정 6m², 흑두기 18m²), 자연석암거설치 18m, PE이중벽관 7.5m
 - 여장보수 : 전돌다듬기 1,572매, 전돌여장해체 9m², 막돌여장해체 6m², 전돌여장쌓기 28m², 막돌여장쌓기 11m², 담장기와잇기 16m

- 영원사 암문(16암문) 정비 : 성곽 L=23.3m, 암문 1개소, 여장 1단정비
 - 토 공사 : 터파기 703m³, 되메우기 687m³, 현장유용 7m³, 잡목제거 900m²
 - 성곽보수 : 거친돌해체 33m³, 거친돌쌓기 37m³, 채움석해체 50m³, 채움석쌓기 51m³, 거친돌보충 11m³, 채움석보충 25m³, 성곽돌가공(거친정 13m², 흑두기 37m²)
 - 여장보수 : 여장 1단 설치 23m

라. 관계전문가 의견

구분		14암문	16암문	공통
2021. 5. 14.	사적분과위원 000	○암문과 좌우 성벽을 보수하되 상부는 여장 기초부까지만 보수하고 여장은 복원하지 않는다.	○암문과 좌우의 성벽을 해체·보수하되 상부는 여장 기초부까지만 보수하고 여장은 복원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보수 석재는 최대한 기존의 석재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한다. ○배수를 고려한 조치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보수분과위원 000	○입구가 매몰되고 외부로 밀려나와 보수하도록 하고 상부는 여장 전체를 복원하지 않도록 하고 여장 기초부까지만 보수하도록 함, 또한 좌우 성벽도 배부름이 심하므로 보수가 필요함.	○개석이 이완이 심하고 구조적으로 불안전하므로 주변 성벽의 배부름이 심한 부분과 같이 보수하도록 함.	○보수공사 시 기존의 석재를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고 내부의 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함.

구분		14암문	16암문	공통
2021. 6. 30.	보수분과 전문위원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문 주변 토사를 우선 제거하여 구조체와 문지도리 석 그리고 통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성벽과 여장의 유구 채집을 우선토록 함. ○ 무사석은 안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체하지 않거나 드잡이를 설계하고 주변을 해체보수하며, 여장은 채집된 부재를 설치토록 함. ○ 외벽 성벽 또한 토사에 묻혀있으므로 일정구간 제거하여 노출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문 전체적으로 이완·기울어져 있으므로 전체 해체보수하고, 여장은 1단만 설치토록 함. ○ 암문 주변 토사는 우선 제거하고, 성벽 부재를 채집토록 함. 	
	관계전문가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토층의 흙이 다시 암문으로 쏠리지 않도록 충분히 경사를 완만하게 제토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이 현장조사 결과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보수 시 주변에서 수습한 낙석을 재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문 내외의 지대석을 확인하고, 주변 성벽의 성토를 제토하는 과정에서 성돌이나 전돌 등 부재를 수습함. ○ 여장 복원은 주변 여장의 높이에 맞추어 하도록 함.

구분		14암문	16암문	공통
2021. 8. 18.	보수분과 전문위원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곽과 여장 유실부는 인근에 잘 남아있는 성벽의 입면을 참고하여 우선 계획하되, 성돌과 여장 재료는 남한산성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채집하도록 함. ○붕괴 성벽은 오랜 시간 토사에 묻혀 채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붕괴 성돌 상부와 중간의 토사를 정밀하게 제거하면서 채집토록 함. ○여장 보수 방향은 유실된 성돌과 여장 재료를 60~70% 채집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비 계획안을 작성하되, 공사 시 채집량을 확인 후 재검토함. ○여장 지대석만 남아있는 구간은 토사를 정밀히 제거 후 타구의 위치를 확인토록 함. ○외동장대암문(14암문)은 개구부 높이와 내탁부 석축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산성 내 유사시기 암문(장경사신지용성, 영원사 암문 등)을 기준으로 계획하되, 공사 시 조사를 선행토록 함. ○붕괴 유실 구간 주변의 조사·채집 범위를 도면에 표기토록 함. ○여장은 타별로 개별 도면을 작성토록 함. 		
	관계전문가 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토된 흙의 체토 시 주변 지형보다 낮아져 다시 성토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계획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암문 상부 여장은 14암문의 경우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주변 여장과 어울리며, 안전상으로도 방비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장은 주변과 같이 지대석 정도만 표현하도록 함. 	

마. 현지조사 의견

< 2021. 11. 18. / 복원정비분과위원 000, 000 >

- 암문 보수공사 설계안은 주변 유구를 채집하여 암문(주변성벽 등) 및 여장 등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함. 다만, 내탁부는 현 상태를 기준으로 최소화 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암문 주변의 퇴적된 토사를 제거 등 시굴조사 후 채성(지대석)을 노출하고 시공측량을 실시하도록 함.
- 시공측량 결과와 설계도서의 부합 여부를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가 추진되도록 함.
- 암문은 일부 변경 및 유실된 부분을 해체 과정에서 정밀실측(3D 스캔, 기존 여장 및 채성에 대한 기법 조사)등과 도식 작업을 통해서 보수 범위를 강구하도록 함.

바. 검토의견

- 신청 설계안은 외부 부재의 반입 없이 보수구간 주변에서 채집된 부재만을 이용하여 성벽 및 여장을 보수하는 사업이나, 채집량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여장 보수범위가 일률적으로 계획되어 있음.
- 이에 일부 구간에 대해 채집량 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채집량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여장별 보수범위를 계획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여장별 보수범위 계획 시, 여장별 보존상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음.
- 여장의 상부 마감은 우수 등에 의한 추가 손상 방지를 위해 강회다짐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대석 노출 후 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사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 채집석재는 압축강도, 풍화도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재사용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 여장해체시 전돌 및 줄눈의 규격, 형태 등에 대하여 정밀실측하고, 이를 수리에 반영토록 한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2. 「남한산성(사적)」 외성 보수공사

가. 제안사항

- 2021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 광주시 소재 사적 「남한산성」 외성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1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 광주시 소재 사적 「남한산성」 외성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안)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 (2) 대상문화재명 : 남한산성
 -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번지 일원
 - 지 정 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남한산성 외성 보수공사 설계
 - 공사예정금액 : 1,202백만원
 - 사업지침 :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외성 보수 설계를 실시한다.
 - 사업내용
 - 여장보수공사 : 15암문~14암문 구간 51타 보수
 - 여장 보수 시 기존여장의 해체는 지양하고 가능한 여장을 드잡이 시공함.
 - 남아있는 여장은 기존규모를 유지하며, 여장의 보수는 여장 주변의 흩어진 여장 부재(전벽돌)의 수습된 범위 내에서 정비함.
 - 근충안 및 원충안이 남아있는 여장은 옥개기와를 포함 전체 보수하고 파손이 심하거나 멸실된 부분은 원충안, 근충안까지 보수함.(옥개기와까지 보수 8타, 충안까지 보수 43타)
 - 마감되는 여장상부는 T60 석회마감하고, T10 여장 내·외부로 구배시공 함.
 - 여장의 줄눈 색상은 기존 여장과 어울리도록 함.

- 성곽공사 : 붕괴된 옹성 1개소, 성벽 3개소 정비
- 채집공사 : 성벽 외부 15m, 내부 5m 구간 기존 성돌 및 여장전돌, 기와 수습
- 부대공사 : 성벽 외부 10m 구간 잡목제거, W1.5m·L220m 보행매트 설치, 내부차단벽 미장보수, 한봉성과 접한 부분 무너진 토사 터파기

라. 관계전문가 의견

<2021. 04. 07. / 보수분과 문화재수리기술전문위원 000>

- 외성의 보수는 기 보수가 이루어진 15암문에서부터 시작하여 14암문 방향으로 무너진 성벽 및 훼손된 여장을 보수함이 좋겠음.
- 성곽 주위에 무너져 내린 여장과 성돌의 채집을 우선하되, 여장과 성돌이 무너져 내린 이후 토사가 덮여 채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토사가 쌓인 곳은 인력터파기 하여 최대한 채집하여 사용토록 함.
- 채집량은 성벽 주변의 유실부를 육안조사하여 설계물량을 반영한 후 공사 시 채집량에 따라 조정토록 하며, 기존 전돌은 작은 조각도 모두 재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일부가 파손 또는 기울은 여장은 현 상태에서 몰탈 충전, 드잡이 등으로 보수 보강하며, 완전 해체 및 완전 복원은 지양토록 함.
- 성벽의 보수를 위해 해체가 불가피한 여장은 가능한 큰 덩어리로 해체 후 재설치토록 함.
- 여장이 완전 멸실된 구간은 성석 위 한단 정도 보수하되, 최대한 채집 전돌을 사용토록 함.
- 봉암성 치는 유실부의 성돌 채집 후 지대석 확인을 위한 터파기를 우선하여 성벽선을 확인토록 하고, 이완된 부분을 해체 후 재설치토록 함.

<2021. 04. 07. / 관계전문가 000>

- 남한산성 외성 중 봉암성 구간 현장확인 후 14암문에서 15암문 사이 구간의 보수공사 설계에 대한 자문의견임.
- 남한산성 외성은 영주 20년(1744)에 옥개를 기와로 덮은 흔적을 가진 곳으로 정조 3년(1779)에 다시 옥개전으로 보수한 본성과는 다른 기법을 고스란히 지닌 곳임.
- 따라서, 완전 해체 및 완전 복원은 지양하고, 보수 시에도 성곽 주위의 여장 전돌 및 성석, 기와는 최대한 채집하여 사용함.
- 보수 범위 구간 내에 현황조사 후 15암문 인근 치구간처럼 붕괴되었거나 이완

으로 압박한 곳은 추가붕괴를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보수설계에 반영함.

- 훼손된 여장은 상부에 흙물을 입힌 고강도석회를 사용하여 더 이상 붕괴가 진행되지 않도록 현 상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보수함.
- 여장 보수에 따른 해체 및 설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큰 덩어리 부재를 유지하도록 함.
- 여장이 완전 멸실된 구간은 지대석 위 하부 막돌을 놓고, 한단 정도 보수함.
- 장기적으로 그간 연구를 바탕으로 외성 전반에 대한 통일된 보존 방안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간담회 등이 필요함.

<2021. 08. 18. / 보수분과 문화재수리기술전문위원 000>

- 성곽과 여장 유실부는 인근에 잘 남아있는 성벽의 입면을 참고하여 우선 계획 하되, 성돌과 여장 재료는 남한산성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채집하도록 함.
- 붕괴 성벽은 오랜 시간 토사에 묻혀 채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붕괴 성돌 상부와 중간의 토사를 정밀하게 제거하면서 채집토록 함.
- 여장 보수 방향은 유실된 성돌과 여장 재료를 60~70% 채집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비 계획안을 작성하되, 공사 시 채집량을 확인 후 재검토함.
- 여장 지대석만 남아있는 구간은 토사를 정밀히 제거 후 타구의 위치를 확인토록 함.
- 붕괴 유실 구간 주변의 조사·채집 범위를 도면에 표기토록 함.
- 여장은 타별로 개별 도면을 작성토록 함.

<2021. 08. 18. / 관계전문가 000>

- 금회 보수구간 여장공사에서 전돌은 주변에서 수습한 전돌의 재사용이 원칙임.
- 여장은 현황을 기준으로 총안 이상 보존된 것은 옥개까지 덮어 잘 보존되도록 하고, 총안 중간의 것은 각 잔존된 높이로 마감하여 회를 덮어 보존하며, 총안 이하로 남아있는 것은 지대석까지만 시공하도록 함.

마. 현지조사 의견

< 2021. 11. 18. / 복원정비분과위원 000, 000>

- 설계도서의 여장 정비는 유구를 채집하여 정비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나, 여장의 일부를 드잡이 하여 보수하는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 공사 전에 성벽과 여장 주위의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고, 시공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시공측량결과와 설계도서와 부합 여부를 자문위원회를 통해 검토한 후, 체성 및 여장 정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여장 및 체성에 대한 기법 조사 등 정밀실측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바. 검토의견

- 신청 설계안은 외부 부재의 반입 없이 보수구간 주변에서 채집된 부재만을 이용하여 성벽 및 여장을 보수하는 사업이나, 채집량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여장 보수범위가 일률적으로 계획되어 있음.
- 이에 일부 구간에 대해 채집량 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채집량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여장별 보수범위를 계획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여장별 보수범위 계획 시, 여장별 보존상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음.
- 여장의 상부 마감은 우수 등에 의한 추가 손상 방지를 위해 강회다짐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대석 노출 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사 추진방안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 채집석재는 압축강도, 풍화도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재사용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 여장(총안 포함)의 너비, 폭, 높이 및 옥개부 등 현황표를 작성하여 그에 기초한 보수방안(해체 또는 드잡이)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 여장해체시 전돌 및 줄눈의 규격, 형태 등에 대하여 정밀실측하고, 이를 수리에 반영토록 한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3.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훈련청 및 군기고 복원공사

가. 제안사항

- 전북 고창 무장면 소재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사적) 훈련청 및 군기고 복원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8년 8차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초석) 등이 확인되어 조선시대 후기 지방지도에 표기된 훈련청과 군기고의 위치 및 규모가 확인됨.
- 2020년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훈련청과 군기고를 복원하고자 함.
- ※ 복원정비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21.8.24) 결과 : 부결
 - 발굴조사 정밀검토, 고증 및 사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복원의 적절성 확보
 - 조사한 자료를 기초로 건물의 기능과 용도에 맞게 계획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고창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사적)
 -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150번지 일원
 - 지 정 일 : 1991. 02. 26
- (3) 신청내용(복원공사 개요)
 - 사 업 명 :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훈련청 및 군기고 복원
 - 공사에정금액 : 1,405백만원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멸실된 훈련청, 군기고 복원을 위한 설계를 시행한다.
 - 사업내용 :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훈련청 및 군기고(2동) 복원

<훈련청> 1동 (금회)

구 분	부결(안)	금회
평 면	정면 7.650M x 측면 6.120M 정면 3칸 측면 2칸, 면적:46.82m ²	좌동
기 단	자연석 기단, 기단상부 : 생석회다짐 기단내밀기 : 1.20m / 정면 1.50m	기단내밀기 : 1.05m (정면은 1.20m임)
축 부	자연석 덩벙주초 위에 기둥 : 우주Ø330, 평주Ø300, 각기둥240×240	좌동
공 포	익공 양식	좌동
가 구	종도리 종도리 및 주심도리 로 이루어진 5량가 가구구조 도리 Ø270, 장여 90×165 대량 390×450, 종량 300×330 충량 270×450	좌동
처마 및 지붕	용마루 (착/부고 위 적새 5단), 내림,추녀마루 (당골 위 적새 3단) 겹처마, 팔작지붕, 한식기와 중와, 기와 끝 막새 마감, 처마내밀기 : 1,800m	흩처마 기와 끝 와구토 마감 처마내밀기 : 1,350mm
창호 및 벽체	한식흩벽마감, 세살창호 및 당판문 설치	좌동

<군기고> : 2동 동일 (금회)

구 분	부결(안)	금회
평 면	정면 10.404M x 측면 3.519M 정면 4칸 측면 1칸, 면적:36.61m ²	좌동
기 단	자연석 기단, 기단상부 : 생석회다짐 기단내밀기 : 0.75m(정면, 배면은 1.10m임)	좌동
축 부	자연석 덩벙주초 위에 기둥 : 원기둥 Ø270	좌동
공 포	도리 양식	좌동
가 구	종도리 및 주심도리 로 이루어진 3량가 가구구조 도리 210×240, 장여 90×165, 대량 240×300	좌동
처마 및 지붕	용마루 (착/부고 위 적새 5단), 내림,추녀마루 (당골 위 적새 3단) 흩처마, 맞배지붕, 한식기와 중와, 기와 끝 막새 마감, 처마내밀기 : 1,320mm	기와 끝 와구토 마감.
창호 및 벽체	한식흩벽마감, 화방벽설치, 판문 및 홍살 설치	좌동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021. 05. / 000 위원 >

○ 훈련청

- 훈련청은 18세기 초중반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130여 년 정도 존치하다 갑오동란(1894)에 상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발굴조사 결과 정면 3칸, 측면 2칸의 구조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원기준은 발굴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지붕은 각종 기록을 종합하였을 때 팔작지붕으로 추정된다.
- 사례조사에서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온돌방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나 무장읍성의 경우 온돌에 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 이러한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훈련청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 사료되며 간살이는 발굴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입면은 현재 뚜렷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 지역의 관아건물을 우선으로 하되 타 지역의 훈련청 건물을 참고하여 복원설계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나 판단된다.
- 그러한 측면에서 당판문 및 세살창호를 설치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군기고

- 군기고는 발굴조사 결과 1차 군기고와 2차 군기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차 군기고는 훈련청과 같이 18세기 초중반 이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130여 년 정도 존치하다 갑오동란(1894) 때 상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발굴조사 결과 정면 4칸, 측면 1칸의 구조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원 기준은 발굴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지붕은 각종 기록을 종합하였을 때 맞배지붕으로 추정된다.
- 사례조사에서 대부분의 군기고는 내부가 열린공간 구조로 되어 있다. 발굴결과와 사례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는 열린공간 형태로 복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군기고는 정면 4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판단되며 간살이는 발굴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입면은 현재 뚜렷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 지역의 관아건물을 우선으로 하되 타지역의 군기고 건물을 참고하여 복원설계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나 판단된다.

- 그러한 측면에서 문은 판문 및 홍살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기타

- 발굴된 유적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복원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태를 보았을 때 신재를 보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신재와 구 부재는 구별되도록 표시하고 이를 기록화에 명확히 표시하여 후대에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
- 연약지반의 경우 보완이 필요하므로 지반조사를 실시한 다음 보완이 필요하면 충분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면 한다.
- 기록화사업을 충실히 하여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

< 2021. 04. / 000 위원 1차 >

고창 무장현 관아 내의 군기고 및 훈련청 복원과 관련

- 일단 배치에 있어 유구가 나와 있어 위치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주변의 지반의 높이와 도로 등의 유구를 통해 원지형을 파악하고 주변환경과의 지형 및 도로와 마을 구성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를 계획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시된 평면 및 입면 등은 유구와 기존의 유사한 건물을 참조하여 제시된 종합정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이해되나 제시된 계획안으로 복원하기에는 건물의 비례 및 입면 구성이 다소 어색함. 자료 및 근거 자료를 보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활용에 있어 고증된 내용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배면의 유구는 복원하고자 하는 유구와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나 발굴기관과 확인이 필요하며, 추후 이와 관련 조치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존치한다는 조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마지막으로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에서는 복원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자료가 없다면 건물 복원에 앞서 유구의 현황과 역사적 의미를 보여주는 정비계획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2021. 07. / 000 위원 2차 >

- 고창 무장현 관아와 훈련청의 경우 입면 등 비례 등이 조정되고 또한 관련 근거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되었다고 생각됨.
- 대지 레벨 조정의 경우 원지반을 기초로 적절하게 계획되고 이와 함께 배수 체계도 잘 계획되었음.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문헌조사 및 발굴조사를 토대로 복원 위치 및 규모가 확인된 후 2000년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임.
- 건물 복원 위치는 당시 발굴조사 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적심석 위 매트기초와 그 위 발굴초석을 이용하여 건물을 복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건물의 기능과 용도를 고려하여 훈련청의 경우 기단내밀기 축소, 겹처마→홀처마, 막새마감→와구토마감, 온돌 제외, 마루방설치 등으로 변경하고, 군기고의 경우 막새마감→와구토마감, 마루→생석회다짐 등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훈련청은 발굴조사 결과 등에 따라 건물의 형태, 규모, 기능 등에 대한 검토가 곤란하므로 추가적인 조사와 고증이 필요하다.
 - 군기고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의 형태, 규모,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심의·검토한다.
 - * 소위원회는 남해경, 조인숙 위원과 수리기술과에서 외부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8명 / 제척 1명

4.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보수정비공사

가. 보고사항

-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사적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보수정비공사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고사유

-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사적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보수정비공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받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고창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 사적
 - 소 재 지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2번지 외 9필지
 - 지 정 일 : 1963. 1. 21.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보수정비공사
 - 공사예정금액 : 4,832백만원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발굴된 발굴지 정비, 가마 보호각 설치 및 발굴 유구 경화 처리를 위한 설계를 시행한다.
 - 사업내용
 - 3호 가마터 보호각 건립공사(면적:1380.65㎡, 417.65평)
 - *규모 및 구조 : 정면 1칸, 측면 11칸(29.40m × 50.16m), 철골구조
 - * 내용 및 형태 : 폴리카보네이트 마감, 그레이팅 관람데크 설치
 - 유구 및 주변 정비공사
 - * 공방지 및 건물지 유구 정비공사
 - 3·6·7호 공방지 유구 표시 보존 정비(복토 후 재현)
 - 동편, 남편, 북편 건물지 유구 수복 보존 정비(노출 복원)
 - * 배수로, 탐방로 및 주변 정비공사
 - 북측, 서측 석축 배수로 설치 (북측 길이 148m, 서측 길이 251m)
 - 탐방로 경화마사토(황토색) 포장(폭 6m, 회차로 폭 5m, 전체면적 1,755㎡)
 - 잔디(평떼) 식재 및 잔디 배수로 설치, 문화재 보호책 철거, 그루터기 및 수목 제거

(4) 발굴이력

- 1981년 : 고창 아산댐 수몰지구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 1982년 : 1차 발굴조사 - 1호 가마, 제1퇴적구릉, 남편건물지, 동편 I~III건물지, 북편석렬, 담장석렬 조사
- 1991년 : 사적 제345호 지정
- 2008년 : 사적지정 조정 - 면적 22,935m² → 33,136m²
- 2013년 : 2차 발굴조사 - 3호 가마, 제4퇴적구릉 층위조사
- 2015년 : 3차 발굴조사 - 건물지 1구역, 2구역 발굴조사
- 2016년 : 4차 발굴조사 - 건물지 1구역, 건물지 3구역 발굴조사
- 2016년 : 사적지적 조정 및 확대 - 지정구역 27,513m², 보호구역 15,230m²
- 2018년 : 5차 발굴조사 - Tr.1~Tr.6 발굴조사
- 2019년 : 고창 용계리 청자 요지 종합정비 활용계획 수립

라. 관계전문가 의견

<2021년 5월 7일 / 000 위원>

- 건물지는 청자 생산을 관리하고 燔造品(번조품)을 선별하였던 監造官(감조관)과 관련된 시설로 판단되는 유구로서 국내에서는 강진 사당리와 부안 유천리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나 용계리 건물지가 가장 잘 남아 있고,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양호하게 남아있는 매우 중요한 유구임. 따라서 보수 정비에 앞서 다시 한번 철저히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건물지의 유실된 부분은 건축사와 도자사 등 관련 전문가가 참가하여 충분한 고증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내부가 재현되지 않는 공방지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갑발과 석재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벽체를 돌려 공방간의 경계를 구획할 필요가 있음.
- 보호각을 시설하여 공개하는 가마는 측면에서 유입되는 침출수를 막기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한 다음 차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각 내부에 그릇을 燔造하면서 사용하였던 갑발과 도지미 등의 요도구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가마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교육적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보호각에 공개하는 가마는 훼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경화 처리를 해야 하며, 약품은 유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을 사용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가역성이 있어야 함.

- 주변 정비는 유적 경관을 최대한 유지하고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며, 유적 주변에 자생하거나 지역 전통 수종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함.
- 무엇보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종합정비계획에 제시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유적과 유구의 특징 및 주변 경관을 배려하도록 함.

< 2021. 8. 12. / 민족문화유산연구원 000 위원 >

- 3호 가마 2기(선행가마 3-1호, 후행가마 3-2호)의 중첩양상, 갑발퇴적층에 조성된 후행가마(3-2호)의 축조방법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보호각을 설계하는 것이 타당함.
- 선행 공방지는 후행 공방지 조성으로 관련 시설이 잘 남아 있지 않으므로, 비교적 잘 남아 있는 3호· 6호·7호 등을 중심으로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 보수정비 계획 시 구조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중국 항주 노호동요지, 절강성 하화심요지 공방지를 참조할 것
- 북편건물지는 대부분 시설이 유실되었으나 초석과 기단이 잘 남아 있는 남편 건물지를 참조 복원할 것
- 남편건물지는 1983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발굴조사 결과 건물내부에 박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건물지의 용도를 추정하는 중요한 단서이므로 보수정비 시 반영하여야 함.

< 2021. 8. 13. / 충북대 000 위원 >

- 대단위 보호각은 자연경관 훼손과 관리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호각 설치의 상태가 양호한 3호 가마를 중심으로 설계하되 가마와 주변 퇴적을 함께 관찰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며, 관람객이 유구에 직접 접근하지 않게 설계 하도록 함.
- 정비과정에서 유구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서를 고려하며, 터파기 시 유구 파손과 또 다른 유구의 발견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굴조사 참여자의 조언과 현장 확인과정을 수시로 실시할 것
- 노출된 유구는 계절 변화와 습기에 의해 쉽게 훼손되므로 관련 전문가의 참여 속에서 수막 차단과 경화처리를 실시하도록 함.
- 보호각 설치 이후 일반 공개 과정에서 야외에 방치된 파편은 망실이 우려되므로 철망 등을 활용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국내외 해당 설치 및 운영 사례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할 것

<2021. 8. 18. / 목원대 000 위원>

- 보호각 지붕은 내부와 외부에서 보여지는 구조체 이미지가 동일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각 내부에 야생동물 접근을 방지하는 시설물을 고려함.
- 보호각 측면 유적층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여 보호각 입면 및 배수계획을 검토함.
- 남북측, 동측 건물지 경계는 발굴조사 결과 높이 차이가 있으므로 현 설계처럼 기단석으로 마무리함.
- 공방지는 현 설계와 같이 복토 후 재현해도 큰 무리가 없음.
- 기타 유적지는 현 설계와 같이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복토 후 잔디식재 함.
- 유적지 내 배수계획은 현 설계와 같이 자연배수로 및 잔디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함.

마. 관계전문가 의견

<2021. 11. 18. 현지조사 / 000 위원, 000 위원>

-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는 고려시대 때 조성된 가마터로 전북지방에서는 가장 오래된 가마 터이다. 발굴과정에서 세 개로 겹쳐진 가마가 발굴되었으며 여러 가지의 청자와 ‘태평임술이년(太平壬戌二年)’이라고 새겨진 기와 조각이 출토되었다.
- 조사는 1981년 문화유적 지표조사가 있었고 1982년 이후 2018년까지 5차에 걸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에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 현재 유적지는 빈터로 남아 있으며 발굴 부분은 흙으로 덮여 있고 주변에 출토된 유물을 쌓아 놓았다. 설치된 시설은 탐방로, 문화재안내판이 있고 부지 내에 소나무와 참나무 등의 노거수가 있다.
- 본 공사는 3호 가마터 보호각 신축, 공방지 유구 정비계획, 북측 배수로 정비, 탐방로 정비, 서측 배수로 정비, 문화재 보호책 철거 등으로 되어 있다.
- 위 사업은 전체적으로 유적 보호와 문화재 탐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 진행하는 사업이다. 단지 유적에 관한 의견은 있었으나 건축에 관한 의견은 적은 편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의견을 개선한다.
- 유적지
 - 이 유적지와 바로 인접하여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가 있어 경관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또한 청자요지는 숲으로 이루어진 계곡에 위치하고 있고 유적지 내부와 주변에는 노거수 숲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관이 매우 중요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유적지는 적은 면적이 아니므로(53,000m²)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비계

획이 아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건축계획에 관한 Master Plan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축을 추진하였으면 한다.

- 유적 내부의 노거수와 주변의 노거수 숲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안은 별목)
- 유적지 내부 수목의 뿌리에 끼여져 있는 유적의 처리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유적지 주변에 적치되어 있는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였으면 한다.

○ 보호각

- 보호각은 당해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유적을 보호하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경관적으로 유적과 더불어 명품 건축이었으면 한다.
- 친환경건축이었으면 한다.
- 결로에 관한 철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 탐방객들에게 개방한다면 안전계획, Universal Design, 조명계획, CPTED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기타 정비계획

- 공방지 유구의 정비는 조금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정비 계획을 진행하였으면 한다.
- 배수로는 인위적인 느낌이 나지 않게 자연석을 이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었으면 한다.
- 탐방로는 인접한 운곡 람사르 습지 도로와 연장하는 느낌으로 마감하였으면 한다.
- 유적지 내 탐방로는 발굴유적을 토대로 개설하였으면 한다.

바.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가마 유적은 복토 보호 상태로, 발굴유구 경화처리는 보호각 건립 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됨.
- 보호각 내 안내판 설치 위치가 유구 관람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위치 조정이 필요하며, 건물지 및 공방지에 안내판 설치 등 종합안내판 및 개별안내판 설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물지 정비 시 별도의 관람동선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이 유구 위로 다니는 등 훼손 우려가 있어 별도의 인제책이나 관람로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건물지 유구 정비에서 기반부 중첩부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설계도서에 석재 산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금회 정비구역 내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은 본래 유구와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보호각의 디자인, 규모, 형태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검토한다.
- 소위원회는 남해경, 조인숙, 위광철 위원과 수리기술과에서 외부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5. 부안 유천리 요지 보호각 건립공사

가. 보고사항

-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사적 「부안 유천리 요지」 보호각 건립공사 설계안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고사유

- 전라북도 부안군 소재 사적 「부안 유천리 요지」 보호각 건립공사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받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부안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부안 유천리 요지 / 사적
 - 소 재 지 :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14번지
 - 지 정 일 : 1963. 1. 21.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부안 유천리 요지 보호각 건립공사
 - 공사예정금액 : 2,186백만원
 -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마터(6구역 1호 가마) 보호각 건립을 위한 설계를 시행한다.
 - * '문화재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77호, 2017.4.20.) 및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0)을 참고하여 문화재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한다.
 - 가마터 보호각 건립공사(면적:662.11㎡, 200.28평)
 - 규모 및 구조 : 정면 1칸, 측면 9칸(17.6m × 31.62m), 철골구조
 - 내용 및 형태 : 내부 관람데크 설치, 박공지붕, 폴리카보네이트 마감
 - 주변 정비공사
 - 보호각 내부 유구 부지 터파기 및 주변 토공사
 - 진입로 흙콘크리트 포장(폭 1.8m, 길이 43m, 면적 86㎡)

- 보호각 주변 배수로 설치(맹암거 유공관 118m, 토사(잔디) 배수로 175m)
- 잔디 식재 및 메쉬펜스 설치
- 기존 문화재 안내판(1개소) 이전 설치

○ 철거공사 : 임시보호각(비닐하우스), 소풍펜션, 예식장 철거

(3) 발굴연혁

- 1929년 : 최초 발견 및 보고(진서리·유천리 가마터 33곳 확인)
- 1939년 : ‘조선 보물 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령’에 의거 ‘유천리·진서리 도요지’ 보물, 명승, 고적 추가지정
- 1963년 : 부안 유천리(사적 제69호) 및 진서리(사적 제70호) 청자가마터 사적 지정
- 1966년 : 유천리 12호 일대 발굴조사
- 1993년 : 부안 유천리·진서리 도요지 정밀 지표조사
- 1997년~1998년 : 부안 유천리 7구역 청자가마터 발굴조사
- 2009년 : 유천리 7구역 5호가마 소성실, 아궁이부 추가조사 및 정비
- 2015년 : 부안 유천리 3구역 시굴조사
- 2016년 : 부안 유천리 3구역 발굴조사
- 2017~2018년 : 부안 유천리 3구역 발굴조사 및 6구역 시굴조사
- 2018~2019년 : 부안 유천리 6구역 발굴조사 및 시굴조사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021. 8. 18. / 목원대 000, 원광대 000 위원 >

- 보호각의 기능상 보호각의 높이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보호각 내부 관람로의 경우 보호각의 구조체를 이용하여 캔틸레버 또는 브라켓 구조를 사용하여 유구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들짐승과 날짐승이 드나들지 못하게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보호각 내부 동선은 유구 특성상 적극적인 동선계획이 필요할 것임.
- 보호각의 외관은 곡선을 지양하고 단순한 형태로 계획하되 지붕에서 연결되는 수벽의 경우 풍하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필요시 보강).
- 부안지역 겨울철 폭설을 대비하여 지붕경사도와 적설하중을 검토할 것

마. 관계전문가 의견

<2021. 11. 18. 현지조사 / 000 위원, 000 위원>

- 부안 유천리 요지는 고려 시대의 가마터로 11세기 말에서 13세기 전반에 걸치는 도자기 조각이 발견되었다. 왕실과 귀족이 사용하는 도자기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대에서 모두 40여 곳의 가마터가 남아 있는 대규모 문화유적이다.
- 1929년 처음 발견되고 1963년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1966년부터 2019년까지 7차례에 걸쳐 시굴조사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 현재 유적지(1호 가마터)는 비닐하우스로 보호되고 있으며 주변에는 철거 건물과 기존에 건축된 보호각, 부안청자박물관 등이 있다.
- 본 공사는 1호 가마터 보호각 신축과 주변정비계획으로 되어 있다.
- 위 사업은 전체적으로 유적 보호와 문화재 탐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다음 내용을 검토하였으면 한다.
 - 이 일대 광활한 면적이 요지가 있었던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건축계획에 관한 Master Plan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축을 추진하였으면 한다.
 - 보호각은 당해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유적을 보호하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경관적으로 유적과 더불어 명품 건축이었으면 한다.
 - 계획된 1호 가마터 옆에 2호 가마터가 발굴되었다. 보호각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친환경건축이었으면 한다.
 - 결로에 관한 철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 탐방객들에게 개방한다면 안전계획, Universal Design, 조명계획, CPTED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였으면 한다.
 - 유적지 내 탐방로는 전체 유적의 내용을 토대로 개설하였으면 한다.
 - 발굴 유적의 보존조치(고형화 등)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검토의견(수리기술파)

- 입구 정면에 안내판 설치를 계획하였는데 이는 관람 시야에 방해되므로 비켜선 곳에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들짐승 출입을 막기 위해 계획한 메쉬펜스는 전면 일부가 개방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들며 유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보호각의 디자인, 규모, 형태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검토한다.
- 소위원회는 남해경, 조인숙, 위광철 위원과 수리기술과에서 외부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한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6. 포항 장기읍성(사적) 수구지 복원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 경북 포항시 소재 「포항 장기읍성(사적)」 수구 복원공사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당해 사업은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발굴조사 결과 등에 따라 ‘포항 장기읍성’ 수구지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포항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포항 장기읍성(사적)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27-2번지 외
 - 지정일 : 1994. 3.17.
 - (3) 신청내용(수리공사 개요)
 - 사업명 : 포항 장기읍성 수구지 정비공사
 - 공사예정금액 : 1,213,500천원
 - 사업지침 : 설계단계부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발굴조사가 완료된 수구지를 복원정비한다.
 - 사업내용 : 포항 장기읍성(사적) 수구지 복원
- [수구 복원]**
- 규모 : 2.4m * 3.0m * 2.25m (너비*폭*높이)
 - 형식 : 홍예형 수구문, 철전문 설치
- [성곽 복원]** : 내외협축, 퇴물림, 허튼층 쌓기 / 수구 포함
- 수구지 성곽 복원 : 22.53m / 성상로 : 점토다짐, 자연석 계단
- [성곽 복원 및 해체·설치]** : 외축내탁, 퇴물림, 허튼층 쌓기
- 수구 서측(수구지~11호치 구간)
 - : 기존성곽 해체 및 석렬 이동 설치 : 26.64m / 성상로 : 점토다짐
 - 수구 동측(수구지~10호치 구간)
 - : 기존성곽 해체 및 석렬 미세조정 설치 : 7.42m / 성상로 : 강회다짐

[기타 주변정비]

- 성곽 배수로 설치 : L=15.6m, W=0.6m / 자연석 쌓기
- 수구 주변 배수로 설치 : L=15.6m / 자연석 쌓기
- 낙차공 설치 : W=1.5m, H=0.75m / 2개소, 자연석 쌓기

○ 수리이력 등

년도	정비내용	비고
1991년	장기읍성 지표조사	
1998년	서문지 ~ 서문지, 3호치 사이 구간 복원	
1999년	서문지와 3호치 사이 ~ 3, 4호치 사이 구간 복원	
2000년	4, 5호치 사이 ~ 4,5호치 사이 구간 복원	
2001년	4, 5호치 사이 ~ 6호치 구간 복원	
2002년	6호치 ~ 동문지 구간 복원	
2004년	동문지 ~ 9, 10호치 사이 구간 복원	
2005년	8, 10호치 사이 ~ 수구지 구간 복원	
2006년	동문지 발굴조사	
2008년	수구지 ~ 북문지 구간 복원	
2011년	북문지 발굴조사	
2011년	북문지 ~ 북문지와 12호치 사이 구간 복원	
2012년	북문지 ~ 12, 1호치 사이 구간 복원	
2015년	북문지 복원	
2017년	6호치 긴급보수공사	
2018년	12, 1호치 사이 ~ 2호치와 서문지 사이 구간 수목 정비 서측벽 외부 보행로 정비, 수구지 목계단 설치	
2019년	포항 장기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2021년	포항 장기읍성 수구지 복원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021. 7.20. / 매장분과 전문위원 000, 000 위원 >

- 설계도서로서는 북서벽과 북동벽 체성라인이 자연스럽지 못하며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서벽 체성의 정비부분이 너무 방향을 달리하고 있어, 내측 부분에 대한 시굴조사가 필요함.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서벽 체성라인의 검증이 필요함.
- 수구 복원시 석재보다는 철재로 칸막이를 할 필요가 있음(철전문).
- 수구 복원시 북동벽 체성의 일부 해체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수구 복원시 홍예의 너비는 2.5m 내외로 추진하기 바람.
- 내부 계곡부에 차수벽을 최소 2개소 이상 설치하여 물의 유속을 줄이도록 할 것.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포항 장기읍성은 전체 1.4km 중 일부 0.2km구간(동문지, 북서측 성곽, 수구)을 제외하고 여장 없이 미석까지 복원 완료되었으며, 금회 수구지는 발굴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구 및 성곽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 수구 서측의 기존에 복원(2008년)된 성곽을 일부(22.53m) 해체하여 석렬을 조정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1991년 지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수구~11호치 구간에는 114m의 성벽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금회 석렬 변경구간의 복원공사 설계변경도면(2009년)에도 지대석 등 일부 성곽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석렬 조정구간에 해당하는 성곽의 지대석 및 면석의 현황 사진, 트렌치 조사 결과 등 추가적인 자료 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 2008~2009년 공사구간에 대한 수리보고서가 현재까지(2021.11.15.) 미확인된 상태임.
- 복원되는 성곽의 하부에는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초계획 반영이 필요함.
- 성곽의 안정화 및 성상로의 부분침하 방지 등을 위한 뒤채움석의 층단 시공 등 적절한 계획 검토가 필요함.
- 수구의 철전문 계획은 고증자료 등을 통한 복원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장마철 피해가 우려되므로 금회 복원계획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수구 서측의 성곽 내측 자연석 배수로 계획(L=16.52m)은 원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수구 입구에서 두 개의 배수로가 만나게 되어 배수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수구 인근 배수계획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수구는 장기읍성의 유일한 배수 통로로 장마철 수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원 성곽의 보호를 위한 배수로 추가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기존 복원성곽의 석렬 조정사항은 추가 자료조사를 통한 복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수구(홍예)의 규모, 수구 주변 배수로 등 배수계획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7. 경주 나정(사적) 경역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 나정(사적)」 경역정비공사 설계승인 심사에 관하여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당해 사업은 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경주 나정 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2017년」에 따라 유구 재현 등 경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주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나정(사적)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탑동 700-1번지
 - 지정일 : 1975.11.20.
- (3) 신청내용(수리공사 개요)
 - 사업명 : 경주 나정 경역정비공사
 - 공사예정금액 : 499,000천원
 - 사업지침
 - 2020년 : 발굴지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유구를 정비한다.
 - 2021년 : 실시설계용역에 근거하여 기단 복원 및 주변정비를 실시한다.
 - 사업내용 : 경주 나정 경역정비공사
[초기 철기시대 유구 추정]
 - 구상유구 일부 둔덕 설치
 - 목책 17개소 설치 : 높이 1m[통일신라시대 유구 추정 : 명문기와 출토 - 문무왕 19년 679년]
 - 팔각건물지 기단 재현 설치 : 화강석초석 52개소 설치
 - ※ 기존 유구 : 기단 귀틀석 2개, 초석 2개
 - 회랑 및 담장지 둔덕설치
 - 기타 안내판 및 펜스설치 등
 - 수리이력 등
 - 2008년 : 발굴조사 보고서
 - 2017년 : 정비기본계획서

라. 관계전문가 의견

< 2021. 6월 / 복원정비분과 000 위원 >

- 「경주 나정 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2017」를 참조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팔각건물지 기단은 기존유구 상부에 충분한 유구 보호층을 확보 후 재현토록 하고, 형태 및 쌓기법은 발굴유구와 동일한 기법으로 함.
- 발굴시 확인된 초석 2본 및 귀틀석 2본은 적절한 위치에 재사용 하도록 하며, 기단상부 면마감은 삼화토다짐으로 하고 우수구배를 주어 배수가 원활하도록 함.
- 회랑지 및 담장지는 복토하여 잔디모식하도록 하되 팔각건물지 기단보다 낮게 조성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함.
- 1차시설인 목책시설과, 구상유구는 일부구간을 재현하도록 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나정 경역내 재현된 시설물의 보호와 방문객들의 관람편의를 고려하여 데크보행로를 설치함.
- 유구재현 시 간섭되는 수목의 제거는 최소화 되도록 하며, 경역외부에 설치된 보호울타리 중 훼손구간은 보수하도록 함.

마. 검토의견(수리기술과)

- 팔각건물지 복원 기단의 일부 형태가 발굴조사 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는 등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발굴조사 당시 발견된 팔각건물지 중앙 수혈유구의 재현에 관한 사항
 - 발굴조사 결과에 따른 유구(① 중앙 수혈유구 - ② 4개 적심 - ③ 9개 정도 적심유구인 내적심 - ④ 24개 외적심) 중 ③ 내적심의 발굴결과 위치와 초석 복원 위치에 차이점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함.
 - * '경주 나정 기본계획 보고서' 204페이지와 284페이지 팔각건물 예상평면도의 비교 확인이 필요하며,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1, 5, 7, 11시 방향의 내적심 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팔각건물지 복원 기단의 2중 기단(외측 덧기단)은 발굴조사 결과 1층만 확인 되므로 계획도면(2층 덧기단)의 수정 검토가 필요함.
- 보행로 데크는 유구 상부(목책시설 유구 라인 등)와 간섭되지 않도록 동선계획 수정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팔각 건물지 기단은 복원 시설물이므로 팔각형 관람로를 통한 근접 관람보다는 나정 입구 전망 데크 설치로 나정의 유구형태를 조망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경주 나정」 유구 중 초기 철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책시설과 구상유구 등의 역사적 흔적도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계획 검토가 필요함.
 - 금회 경역정비공사는 유구복원이므로 현대적 기술(조명, 증강현실 등) 적용도 가능한 유구정비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구역 내 적치된 석재는 시대구분 등(조선시대 또는 현대 유구) 분류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검토가 필요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팔각건물지 복원 기단 형태와 발굴조사 결과 차이점(초석 위치 및 덧기단 등)에 대해 확인 후 보완
 - 보행로 데크는 유구 상부와 최대한 중첩되지 않도록 전망 데크 등의 형태로 검토.
 - 복원 석재의 가공정도는 기존 유구와 최대한 유사한 기법으로 반영
 - 문화재구역 내 적치된 석재에 대한 정비계획을 반영
 - 추후, 경주 나정 유적의 효과적인 전시를 위하여 현대적기술(증강현실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8명 / 제척 1명